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비상체계 가동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설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근무조 편성

‘도축장 일제소독의 날’ 지정...철새도래지 10개소 매일 소독도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귀성객, 해외 여행객 대거 이동에 따른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본소와 지소 방역대책 상황실 4개소에 상황근무자 및 질병 진단반 등으로 근무조를 편성해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 접수, 실험실 검사 등 신속한 초동방역 체계를 구축

키로 했다.

특히 구제역·AI 확산 방지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일조하기 위해 12일과 19일, 매주 금요일을 ‘도축장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검사관 감독하에 도축작업 완료 후 일제 세척·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출하 닭·오리 농장 중 30% 이상 AI 정밀검사 및 이동승인서·운반차량 소독필증 휴대 여부 확인

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10개소를 매일 소독해 철새를 통한 AI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구제역 항체양성을 제고할 위해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개선 시까지 1개월마다 재검사를 할 계획이다.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양 70%,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이상이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전남에서는 1월 10일 이후 AI 추가 발생이 없으나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재발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통제 및 철저한 축사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국번없이 1588-4000)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1월 이후 AI 상시 예찰검사·발생 농장 방역대와 역학 관련 농장 일제 검사 등 총 7만여 건의 검사를 실시해 양성 4농가를 선제적으로 색출하는 등 AI 확산 방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김정환 기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9일 순천송남중학교에서 전남교육문화유산 지정 제막식을 갖고 학생들과 함께 안내판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교육청, 순천송남중 등 14개 건축물 문화유산 지정

전남도교육청이 전남지역에 산재한 교육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9일 순천송남중학교에서 전남교육문화유산 지정 제막식을 가졌다.

순천송남중학교 구 건물은 1958년 신축된 석조 건물로 이음국민학교에서 수업 받는 중학생들을 위해 지역 유지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교육시설이다. 벽은 순천 육천지역의 화강석을 사용했고 건물 중앙부를 뚫어놓아 정면을 강조했다. 1995년 SBS 드라마 ‘모래시계’ 촬영장소로 활용됐던 곳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교육문화유산 찾기에 나서 1970년 이전에 지어진 교육 시설 781개를 전수 조사했다.

전문가들의 현지실사를 통해 이

중 14개 건물을 전남교육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은 순천매산중 매산관, 목포정명여중 신교사터, 순천매산여고 프레스톤관, 목포유달초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 목포정명여중 특별동, 지리산 학생수련장 호영민속관, 거문초 손죽분교장 교사 문태고 본관, 장흥관산중 본관, 송산초 다목적교실 고흥도화중 별관, 순천송남중 구관, 정혜초 별관, 목포정명여고 석조관이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전남에 개교 100년을 넘은 학교가 33곳이나 되지만 건물이 제대로 보존돼 있는 학교가 거의 없어 늘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교육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학교역사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전남도, 장애인 일자리에 130억 투입

전남도는 장애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보다 20억 원을 증액한 130억 원을 들여 장애인 1천 421명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일자리에는 유형별로 공공기관 행정도우미, 주차 계도, 환경 정리, 안내사 지원, 요양보호사 보조 업무, 5개 사업으로 나뉘 추진된다.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터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주

당 14시간부터 최대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급여는 월 42만 2천 원부터 최대 157만 4천 원을 지급받는다.

전라남도는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54억 원을 들여 장애인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장애인의 근로기회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함께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자조모임)’ 지원 사업과 ‘여성장애인 세상 밖으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자립 기반을 다지는 등 장애인 복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고교 평준화지역 재지정 여론조사 거쳐야”

정병희 전남도의원

전남지역 고등학교 평준화지역을 변경하거나 재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 여론 조사를 거쳐도록 조치가 제정됐다.

최근 전라남도의회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발의한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통학의 편의성과 학생 배정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했고 대상 지역을 종전과 같이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로 명시했다.

특히 평준화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교육감이 평준화

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도록 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총족되도록 그 기준도 정했다.

이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했고 여론조사 대상에 학부모뿐만 아니라 직접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정책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이다.

정병희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전남의 교육수요와 여건이 반영되어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동구 아가페발관리센터, 자활기업 창업 첫 발

광주 동구는 저소득층 자활을 돕는 자활기업 ‘동구아가페발관리센터’가 8일 동명동 사업장(동명로 12)에서 오픈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구아가페발관리센터’는 동구 자활근로사업단 중 하나인 ‘발건강케어서비스사업단’을 모태로 지난 2013년 사회복지서비스형으로 시작해 2015년 시장진입형으로 전환하며 5년간 약 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동구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사업단에 지원하고 사업단은 매출액의 60% 인 약 3억 원을 창업자금으로 적립해 자활기업 창업의 결실을 맺게 됐다.

서구 자원봉사센터, 2018 비전 선포식 개최

광주 서구 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찬일)가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 및 불 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 97년 개소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99년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2009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21년째 운영중이다.

서구 모든 주민이 1년에 1번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및 기업 자원봉사 진흥을 목표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현재 두바퀴 사랑회, 만들레 봉사회를 비롯 중앙동, 광천동, 금회2동, 쌍촌동, 치평동, 상광동 등 다양한 단체가 활동중에 있으며, 서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만 8만 여명에 이른다.

남구,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주민등록 일제 정리

9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달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남구는 담당부서 공무원과 통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방문을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하거나 부실 신고를 했는지의 여부와 함께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등도 파악 중이다.

남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과태료 징수 시 자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를 추가로 경감해 주고 있다.

북구, 직장맘 행복교실 28일까지 참여 모집

광주 북구는 일과 육이를 병행하는 직장맘의 고충 해소를 위한 ‘직장맘 행복교실’ 운영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주민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직접 수행할 단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직장맘 행복교실’은 직장생활과 출산·육이를 병행하는 직장맘들에게 힐링과 자기계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북구는 오는 28일까지 참여단체를 모집하며, 참여단체는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 일체와 단체 회의록 사본 및 사진 등을 구비하여 2월 26~28일 서울간 북구청 여성가족과(☎410-6400)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산구 드림스타트 부모 교육 실시



광산구 드림스타트 부모 교육 실시 모습

광산구 드림스타트는 지난 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진행한 배은경 호남대 교수는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그리고 아동 권리와 학대 예방 방안을 소개했다.

광산구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에게 보건·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해남 · 나주 · 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석면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석면조사

측 량 >> 토 목 설 계 >> 도 시 계 획
토 목 공 사 >> 창 업 상 담 >> 관 계 민 원 업 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